

건설동향브리핑

제548호 (2016. 2. 15)

■ 정책 · 이슈

- 국토교통부 201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 국외 건설사업 원가관리 자격제도 현황과 시사점

■ 경영 · 정보

- 유가 하락과 해외건설 수주동향

■ 경제 동향

- 1월 CBI, 전월 대비 13.2p 하락한 73.5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신용평가 우수업체, 자본금실사 면제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국토교통부 201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¹⁾

- 건설산업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

■ ‘국토공간 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미래 선도’ 목표의 주요 추진 과제 제시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2016년 5대 주요 추진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

- ①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②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③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④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⑤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관련 부문은 ‘국토·교통·물류산업의 재도약’ 부분에 제시됨. 주요 내용으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 입찰제도 개선 : 운(運)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실질심사 강화(2016. 12)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 외에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2016. 1~,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약 10조원 규모)
- 생산체계 혁신 : 대규모 공사부터 생산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중소규모는 직접시공 강화(2016. 6, 관련 기본계획 수립)
- 보증제도 개선 : 과도한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거부를 강화(보증거부 낙찰률 기준 상향)하고,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 강화(2016. 9)
- 모니터링 강화 : 공사실적관리를 세분화(30개 업종별 → 세부공종별)하고(2016. 11),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적발기능 강화²⁾(2016. 10)

1) 2016년 1월 27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건설산업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관행 개선 :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분화(교량→받침장치·교면포장, 신설 : 하천공사·수문 등)를 추진하고(2016. 12), 시공능력평가 검증 강화 및 신규 법 위반 업체 윤리교육 실시(2016. 7)
- 대금체불 최소화 :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 현장에 하도급·자재 등 대금 지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행(2016. 6)
 - 상습체불업자(최근 3년 간 2회 이상 체불로 처분을 받고, 체불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는 명단공표(2016. 11) 및 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발주자가 상습체불 하도급자에 계약변경·해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방식 개선 :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 차등 확대,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등 기술변별력 강화(2016. 9)
 - 건설공사 및 용역 PQ의 경우도 통과 업체 수를 실질평가 가능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성평가·기술점수 비중 상향
 - 글로벌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력 우위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경험축적 및 제도개선 병행
- 건설기준 개편 및 정보화 :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 코드로 통합·개편(2016. 6)하고, 성능중심 건설기준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3차원 설계·시공(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활용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2016. 6) 및 건설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 건설인력관리 :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등급별 역량교육 및 운영관리시스템 구축(2016. 9)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2) 부실기업 점검 범위를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조치

국외 건설사업 원가관리 자격제도 현황과 시사점¹⁾

- 민간 주도의 체계적 자격제도 운영 통한 전문가 양성 -

■ 건설사업 원가관리 업무 영역

- 건설사업 원가관리는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의 예산 수립 및 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함.
 - 시공 이전단계의 업무에는 공사원가 예측, 적정이익 검토, 공사방법을 고려한 실행예산 작성 등이 포함됨. 시공 중 업무에는 비목별 · 공종별 · 시설별 진행원가의 분석, 사업비 관점의 위험 요소와 중점관리 대상 파악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건설사업 원가관리는 자재, 공법 등 투입요소 및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프로젝트의 성공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의 핵심 업무임.

■ 국외 주요 건설사업 원가관리 자격제도

- 해외에서는 건설사업 원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여 원가관리 전문 역량을 갖춘 기술자를 육성하고 인증하기 위한 자격제도 및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함.
- 영국의 경우, 공공 주도(왕립 기관)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원가관리 관련 자격제도 및 인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자격제도를 역량 수준 및 전문 영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초급 · 고급 원가관리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 견적전문 자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고급원가관리 자격인 CCP의 경우 8년 이상의 높은 실무경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3년마다 갱신을 위한 심사를 실시, 자격 보유자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원가관리 분야 전문성 및 지식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원가관리자격제도를 운영,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커리어패스를 제시하고 있음.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2016.1)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미국의 주요 건설 원가관리 관련 자격제도>

자격명	Certified Cost Technician (CCT, Technician Level)	Certified Cost Professional (CCP, Professional Level)	Certified Estimating Professional (CEP, Professional Level)
응시 자격	실무 경력 4년 이상 (관련 전공 대학 학위 4년 인정)	실무 경력 8년 이상 (관련 전공 대학 학위 4년 인정)	실무 경력 8년 이상 (관련 전공 대학 학위 4년 인정)
검정 과목	- Skills & Knowledge - Certified Cost Technical Primer - Recommended Practices - Total Cost Management	- Supporting Skills & Knowledge - Cost Estimating and Control - Project Management - Economic Analysis	- Scoping / Quantification - Costing / Pricing - Change Order Estimates - Estimating Database Development
갱신 여부	해당 없음	3년마다 시험 실시	해당 없음

자료 : 미국원가관리사협회(AACE)

<일본의 주요 건설 원가관리 관련 자격제도>

자격명	건축적산사보	건축적산사	건축코스트관리사
정의	- 건축 생산 과정의 공사비 산정 및 부대업무 관련 기초지식 보유자	- 건축 생산 과정의 공사비 산정과 부대업무 관련 고도한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자	- 기획·구상부터 유지관리,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원가관리업무의 고도한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자
요구 지식	- 생산 프로세스 개요 - 공사 발주 계획 개요 - 설계도서 구성, 공사비 구성 - 적산 업무·실무 개요 - LCC, VE 개요	- 생산 프로세스 / 공사 발주 계획 - 설계도서 구성, 공사비 구성 - 적산업무 내용, 수량적산 기본 - 표준내역서식, 주요 시장 가격 - 데이터 분석 및 적산 체크 - 시공 기술, LCC, VE, 친환경 개요	- 건축적산사 요구 지식 - 원가정보 수집 및 분석 - 광범위한 시장 단가 - 발주 전략, 조달 전략, 실현 가능성 - 개산 기법, 시공 기술, 공기 정산 - LCC, VE, FM, PM, CM - 친환경, 건축 관련 법규, IT
요구 기술	해당 없음	- 건축공사 수량 산출 -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	- 각 단계 공사·기타 비용 산정 - 코스트 플래닝, 코스트 컨트롤

자료 : 일본건축적산협회(BSIJ)

■ 비교 및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자격제도는 영역 및 수준에 따른 자격제도를 구분, 기술자의 단계적 전문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이는 향후 국내 원가관리 자격제도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의 고급 원가관리 자격(건축코스트관리사)은 검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 건설사업 전 영역의 컨설팅 역량을 갖춘 기술자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역시 향후 자격제도 운영에 참조할 만한 부분임.
- 국외 사례와 같은 자격제도의 체계화는 민간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건설기업에서 원가관리 자격을 경력관리 항목으로 인정하거나, 이·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박희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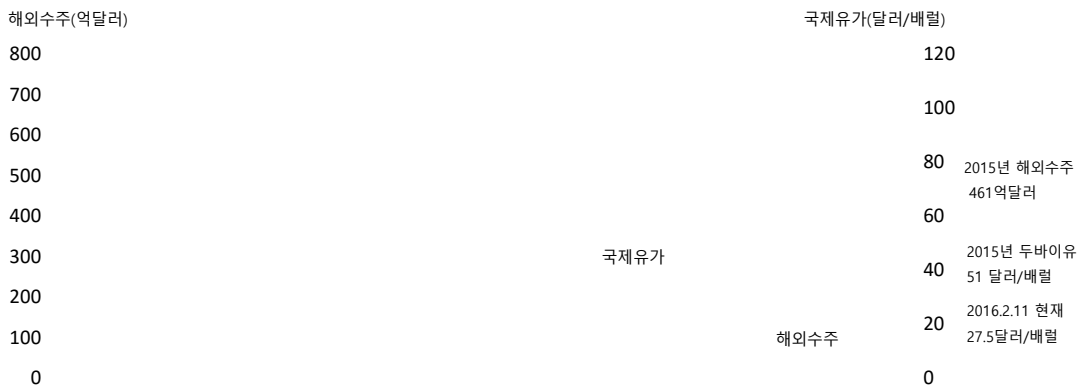
유가 하락과 해외건설 수주동향¹⁾

- 유가와 해외건설 수주 상관성 높아, 저유가 패러다임에 대한 전략 필요 -

■ 국제 유가와 해외건설의 상관관계

- 최근의 유가 하락은 조선과 철강 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건설 산업 역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부진이 예상되고 있음.
- 2015년 해외건설 수주의 69%는 상위 10대 국가²⁾에서 체결되었는데, 이들 10개 국가 중 9개 국가가 산유국으로 저유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건설시장 위축 가능성이 높음.
- 저유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 플랜트의 2015년 수주액은 77.6억 달러로 플랜트 수주의 30%,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동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국내 건설기업의 사업구조 특성상 해외 수주 규모는 국제 유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음.
- 국제 유가(두바이유)와 국내 건설기업 해외 수주액의 상관성은 ‘상관계수 0.931’³⁾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와 국제 유가 추이>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http://www.icak.or.kr>) 및 페트로넷 석유총람(<http://www.petronet.co.kr/>) 참고

- 1) 최근 지속적인 유가 하락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님. 이에 따라 저유가 관련 동향 분석을 2회로 게재함. 본고는 제547호의 저유가 동향 집중 분석에 이은 2회차이며, 유가 하락이 해외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음.
- 2) 투르크메니스탄(1위), 쿠웨이트(2위), 베트남(3위), 사우디아라비아(4위), 베네수엘라(5위), 이라크(6위), 싱가포르(7위), 카타르(8위), 호주(9위), 미국(10위)이며, 이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산유국임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참고
- 3) 상관계수 값 해석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0.7 이상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평가함.

- 국제 유가와 해외 수주의 상관성만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 이상 2016년도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배럴당 97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는 2015년 51달러로 하락했고,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수주는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5년 461억 달러로 하락함.
- 현재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30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세계석유전망보고서는 2016년 유가를 41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음⁴⁾.

■ 저유가 시대의 준비

- 유가 하락을 야기한 원인인 원유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이라는 상황은 단시간에 변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저유가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음.
- 공급 측면 원인으로는 셰일가스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가, 낮은 유가에 도 감산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 경제제재가 해제된 세계 석유매장량 4위 국가인 이란의 원유 공급 재개 등이 있음.
- 소비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 소비 위축과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이 원인이 됨.
- 셰일가스와 같은 원유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기술, 석유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전기자동차 기술 등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100달러 시대와 같은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지난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체결로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임.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가 하락은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이 아니라 석유에너지가 중심이 되었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동안 중동의 석유에너지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건설기업은 유가 하락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장전략이 통용되지 않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4) OPEC은 2020년이 되어서야 7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함 ; 서울경제(2015.12.24), OPEC “유가, 배럴당 90弗 회복 20년 이상 걸릴 것”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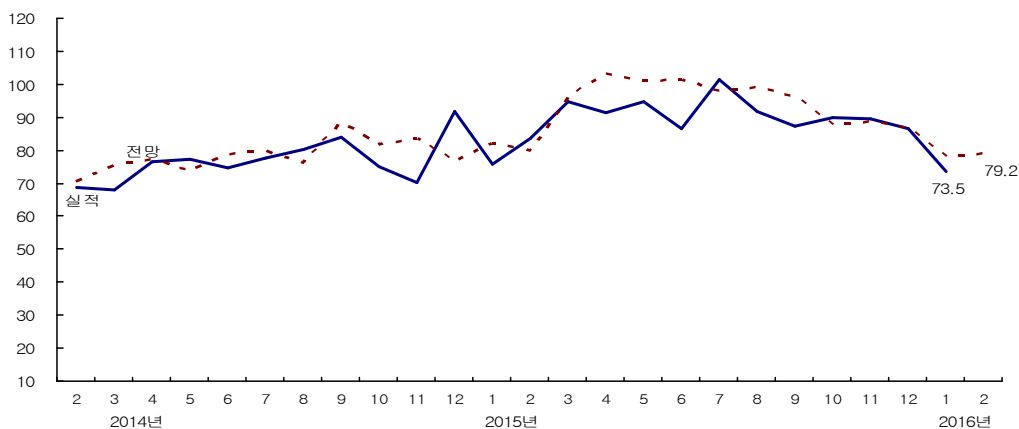
1월 CBSI, 전월 대비 13.2p 하락한 73.5

- 3개월 연속 하락, 14개월 내 최저 수준 -

■ 주택경기 둔화 · 중국발 경제위기 · 계절적 요인 복합으로 큰 폭 하락

- 201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비 13.2p 하락한 73.5를 기록함.
- 2015년 7월에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한 이후 8월부터 상승세가 한 풀 꺾여 90선에서 정체함. 특히, 지난 2015년 연말에는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해 86.7을 기록함.
- 2016년 1월 들어서도 전월비 13.2p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수가 14개월 내 최저 수준인 73.5까지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가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감소폭이 컸음. 1월 CBSI는 최근 5년 간 평균적으로 전월비 4.9p 하락하였음.
- 결국 올 초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중국발 대내외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증가된 것도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기업 규모 관계 없이 모든 기업 지수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지수 하락폭이 매우 컸음.
- 대형기업 지수는 작년 12월에 전월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1개월 만에 기준선(100.0)을 회복하였는데, 올해 1월에는 다시 전월비 7.7p 하락해 작년 11월과 동일한 92.3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17.3p나 하락한 76.5를 기록함. 이는 12개월 내 최저치로 중견기업의 체감경기가 다시 매우 악화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5.1p 하락해 14개월 내 최저치인 47.9을 기록함.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여전히 가장 낮은 체감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78.1	79.2
규모별	대형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100.0
	중견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4.4
	중소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4.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월 전망치, 1월 실적치 대비 5.7p 높은 79.2 기록

-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5.7p 높은 79.2를 기록함.
- 2월 전망치가 1월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망치가 기준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0선 후반에 불과함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통상 2월까지의 공사물량이 많지 않아 CBSI의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2월에도 특별히 건설경기를 개선할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28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 ‘균형분과 월례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1. 29	국토교통부	• 건설인력기재과 주최, ‘정부법령 개정 자문위원회’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논의

■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해외건설 저성장기의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건설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사업 다각화 및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저성장기 국내 건설기업들의 경영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행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건설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던 신흥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2014년 하락했으며, 해외시장은 매출 하락과 과열경쟁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그동안 성장세를 보여 온 석유화학시설 및 발전시설 등 플랜트 부문 시장의 규모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 • 해외 건설기업의 다각화 수준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결과, 전문화된 기업은 분석기간 동안 다각화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 및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 성과는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 기업군에는 플랜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경영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플랜트시장의 고성장 환경이 반영되어야 함. - 높은 성장세를 보여 온 플랜트 부문의 경기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문화 기업군의 경영 성과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1차 개설

- 연구원은 2.23(화)~25(목) 3일 간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건설업체 관련 실무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을 개설함.
- 이번 교육과정은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으로 편성돼 실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문의 및 참조 : 출판팀(Tel. 02-3441-0691),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문의 : 출판팀(Tel. 02-3441-0839)

신용평가 우수업체, 자본금실사 면제해야

지난 연말에도 건설기업은 실질자본금 실태조사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연말 2개월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실질자본금을 맞춰놓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기업의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이유는 통상 건설계약의 규모가 거액이며, 그 때문에 한계기업의 부도나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 즉, 건설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비자나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실혐의업체뿐만 아니라 우량업체를 포함하여 연말 자본금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자본금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 등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을 법정자본금의 5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 최근 3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무능력과 관계없이 연말 자본금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질자본금 실태조사와 더불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신고 제도를 두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기적신고를 폐지하고, 그 대신 건설산업지식정보망(KISCON)에 의해 걸러진 부실혐의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시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폐이퍼컴퍼니 일수록 서류 처리가 완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나 공사실적 등 서류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영사항심사’ 제도가 있는데,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공사실적이나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와 유사한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있으나, 단순히 도급하한액 설정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 주기적신고 제도 폐지 후 부실업체 퇴출을 강화하려면 매년 실시되는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건설기업의 경영상태나 등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경제, 2016. 1. 15>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